

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세션 13, 섭리의 역할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성경 신학에 대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차에 따르면, 우리는 3부, 주관적 도전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만둘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거기서 조금 마무리할 겁니다. 하지만 노트는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오늘의 강의는 사실 13번째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비던스의 역할은 GM 13입니다. GM 13, 프로비던스의 역할. 오늘 강의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하지만 영의 역할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주요 과제는 당신이 스스로 조사를 할 만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념은 당신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포인터를 주고 특정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술과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따라 다소간 당신 자신의 일을 하고 당신 자신의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 멈췄을 때, 저는 실제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콜로새서와 바울의 종교적 언어 때문에 쉽게 잘못 읽히는 다른 본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없는 이 특정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관한 원리들. 사도 시대에 하나님은 구속사적 목적을 위해 계시적 인도를 사용하셨어.

구약 시대에 그는 직접 소통했고, 제사장들과 함께 일했고, 나머지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린 계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전은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100여 년 동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류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무오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오한 규칙이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영의 현존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오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도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무오한 규칙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문화의 모든 것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당신의 직접적인 암시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으로 그것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모든 사람을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다양성을 허락한 이유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태의 상태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맥락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외의 계시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에 파란색 전화기를 놓고, 그것을 집어 들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하도록 허락하기도 하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삶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 외의 계시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지 않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 지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삶의 문제를 판단할 때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계시적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제 생각에 하나님의 운영 방식에 어긋납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을 다시 연습해 봅시다.

우리는 양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사고 과정 속 복잡한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양심은 항상 세계관과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양심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고통. 아니면 적어도 내가 틀렸나? 하는 의문.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과 양심이 둘 다 증인이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요 로프였습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세요. 내적인 비판적 자기 인식은 양심의 영역이며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내적 증인. 그래서 결국, 영도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련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련된 우리의 내적 자기성찰과 양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영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손가락을 대었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의 손가락. 그래서 그것은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과 양심은 마음 속에서 작용합니다. 양심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언급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슈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부 압력을 인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것으로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확신시키든, 영이 우리를 확신시키든 말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같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를 오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영이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양심과 성령을 구별하는 것. 양심과 성령은 마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글썄요,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증거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맥락 속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겨냥된 본문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다락방 담화나 다른 곳에서처럼요. 구약성경에서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본문이 실제로 당신을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본문을 제대로 주의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영이 마음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우리의 양심을,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새로운 계시적 내용이나 해석적 내용 중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 다섯 가지 견해를 적고, 성령이여, 어느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당신은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모욕했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숙제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런 다음 어떤 이유로든 보상을 받거나 그것을 다시 평가하도록 부름받을 때까지 그것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근거하여 우리가 듣는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분별합니다.

항상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영의 역할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할은 적어도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할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섭리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여러분은 섭리의 역할에 대한 이 특정 세션, GM 13에 대한 여러분의 노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와우, 성령이나 양심을 생각해 보면, 양심은 이런 것들 중 일부에 비하면 쉬운 일이고, 그것들은 모두 섭리의 문제에 비하면 쉬운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진술로 섭리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신과 모든 것을 주님께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실수, 당신의 실패, 당신은 그냥 *ipso fact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입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이 다소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어리석음과 부주의, 생각의 부족에 대해 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섭리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섭리는 문학과 윤리에서 악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섭리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로비던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극단 사이의 행복한 중간 지점을 찾고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주권의 연속성에 대한 논란.

기억하세요, 주권은 명사이고, 신은 주권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종류입니다. 주권, 신의 주권은 그것을 부사적 영역에 더 두는데, 그것은 신이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실제로 신의 행동을 포괄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부사적 개념으로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분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권적인 신을 가지고 있고, 섭리는 그의 활동입니다.

이제, 주권 또는 섭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제가 말해야 할 개방적 유신론적 관점의 연속선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현장에 등장했고, 저는 그것이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 하지만, 우리는 최근의 관점에 있습니다. 섭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점으로, 우리는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전적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조금 주장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는 자연에 의해 구속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제한되기는 하지만, 자연이라는 문제에 의해 제한됩니다. 오늘날 많은 집단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낮은 관점입니다.

존 손더스라는 위대한 소년이 우리가 개방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지지자였습니다. 저는 개방신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개방신학의 초보자도 아닙니다.

저는 고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고, 신에 대한 진술이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대로 지혜로 처리합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글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찾아보고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관점과 낮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높은 길, 고전적인 관점을 택할 것입니다. 신은 알고, 신은 통제하지만,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낮은 관점의 관점에서 도전에 답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아마 잘못된 이유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쉬운 답은 결코 옳은 답이 아니거든요. 고전적 관점에 대한 높은 견해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본 책 중 섭리 문제를 실제로 다룬 최고의

책 중 하나는 Spiegel의 이 책, *Benefits of Providence*, Crossway의 *A New Look at Divine Sovereignty*입니다.

이 노트에 섭리에 대한 참고문헌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곳입니다. 존 파이퍼는 최근에 섭리에 대한 매우 방대한 책을 썼지만, 제 생각에 파이퍼가 한 일은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반드시 더 어려운 영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섭리에 대한 구절, 서사, 패러다임을 제공했지만, 다른 책들은 그 영역의 철학적, 신학적 도전을 훨씬 더 많이 다룹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욥기 42장 2절의 구절을 암기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구절 중 하나인데, 욥이 말했듯이, 저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목적도 억제될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은 거기서 오래된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의 어떤 목적도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섭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보통은 사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 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여 큰 피해와 파괴를 입혔다면, 그것은 여전히 신의 섭리 아래 있고 지구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섭리일 것이지만, 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개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의 지혜로만 우리는 특정한 주요 부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영역에서, 학자이든 말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전성기에 죽은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는 그저 두 번째 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고로 죽었어요. 대부분, 때로는 질병으로요. 왜 신은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셨어요? 제 말은, 그들은 가치 있고, 매우 가치 있는 모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신은 일반적으로 삶에 개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삶은 가도, 그는 개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그것을 봅니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상을 걷고 계실 때 죽었는데, 예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특히, 우리는 물론 이것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취업, 저임금, 암, 온갖 질병들. 우리는 MS를 앓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루게릭병은 우리가 아는 많은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당신은 그것이 제가 부정적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 육체적 악, 태평양의 쓰나미, 제가 사는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북쪽의 눈, 음, 아기를 들이받는 술 취한 사람들, 음, 그것은 부정적 섭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문제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제가 당신에게 신조를 읽어주었을 때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결정, 섭리, 주권적 결정, 심지어 이차적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철학과 신학에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다루지 않지만, 그것은 이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신명기 29:29.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합니다.

그것이 ASV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계시된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영원히 속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모든 것이 맞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지만, 그의 도덕적 의지와 율법의 말씀은 계시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 영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하고, 찾지 않고,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사야 46장 10절도 있지만, 신명기 29장 29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여호와, 곧 주님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계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기 전까지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 대한 생각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계시가 올 때까지 그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요. 그는 아모스가 경고한 구약의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히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의 비밀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1:3, 13-14.

그런데 현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실제 문장입니다. 실제 문장을 보려면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같은 원래 언어 텍스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ASV와 같은 오래된 버전은 종종 전체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는 매우 길고 때로는 현대 영어에서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에베소서 1:3-14, 11절, 한 문장입니다. 5절은, 우리에게 미리 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입양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곧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목적은 주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권고에 따라 행하시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진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로마서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내용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쁩니다.

그리고 악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에게 전능한 전능하신 선하신 신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그가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식일 리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건 당신의 의견이에요. 그건 신의 의견이 아니에요. 신은 말씀하실 텐데, 삶 속의 악은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고,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그의 명령으로 일어나도록 허락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부모님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치유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섭리의 묘사.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확증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신의 은밀한 행위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에게 "주님, 2주 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결코 그렇게 하라고 격려받거나 말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하늘에 앉아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가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바울은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삶에서 결심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간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폴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신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의 현실을 선언할 실제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COVID-19가 인류에게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쓰나미가 태평양 섬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허리케인이, 세 번이나 연달아 , 플로리다를 덮쳤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진술을 할 때, 그들은 경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고, 신이 창조한 자연과 그 자신 사이의 상관관계와 그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성경, 특히 구약과 서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그런 종류의 통찰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처리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의 현실을 선언할 실제 권위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신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일이고, 우리가 알아낼 일이 아닙니다. 조니, 그녀의 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이빙 사고를 당했고 평생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의 은혜를 대변하는 직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정과 악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섭리의 결과로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모두 신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삶에서 더 긍정적인 섭리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신은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고, 우주의 모든 측면을 영광스러운 종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섭리의 의미. 우리는 신이 항상 일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차에 갇혔다. 그는 가솔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의 눈알은 뺨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튀어나왔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무력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구절은, 모든 일에서 기뻐하라.

글쎄요,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내기 위해 반드시 2차적인 원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귀 난로에 뛰어듭니다.

당신은 같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비밀스러운 일을 권위 있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품에 안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왕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서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구약성서,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목자는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말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그의 왕권의 다른 측면을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은유의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우리의 목자이신 왕이십니다. 그것은 쉬어갈 곳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물을 알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알고 싶어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정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신은 항상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계시된 뜻, 그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판단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깊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가 남긴 메시지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저는 그 줄의 끝에 서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우리 대부분에게 정말

영광스럽지 않은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 그게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 사건들의 부정성과 파괴, 공포와 그 의미를 설명하려면 우리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의 섭리에 대한 찬송가를 건드리려면 확실히 진지하게 읽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 기독교 세계관의 한 부분인데, 신의 섭리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것을 발명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다른 설명이 있죠, 그렇죠? 신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정해진 때에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반대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반성할 만한 몇 가지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수업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섭리와 주권의 더 깊은 문제를 탐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 신학의 일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도달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저, 오, 그게 영적으로 편리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얻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별,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적 취향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영역 중 일부에서 많은 수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깊은 사고 의 도메인의 과제입니다. 영원히 악의 문제에 도전하는 문제. 저는 여기 뒤에 있고, TV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이 강의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프로비던스와 악의 문제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찬 선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고 있고,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구별입니다. 저는 "오, 저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데 지쳤습니다. 글썄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멍청한 소리야.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한다는 것은 특히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성경에서 주장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와 이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악의 문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도전.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도메인 중 일부에서 설명하지 않은 텍스트가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 동료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회사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섭리와 주권의 더 깊은 문제를 탐구할 수 없어요.

그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도전입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도전, 신의 침묵의 문제. 로버트 앤더슨 경은 수세기 전에 신의 침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마치 천장을 때리고 바로 얼굴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이 여전히 그의 왕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결코 알아낼 수 없을 테니 포기하세요. 행복하세요. 옅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옅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글썄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과의 성실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섭리는 도전입니다.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다 말할 쉬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결론만 말이에요. 현재 연구는 신의 주권과 주권적 섭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확증합니다.

당신의 현재 선생님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긍정적 섭리와 부정적 섭리를 사용하여 삶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권적 섭리에 대한 연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사고 수준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의 측면에서 깊은 주제이며, 우리가 신정론화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 신정론화 는 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정직하게 묻고 쫓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리소스, 저는 이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은 노트에서 볼 수 있고, 이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Spiegel 권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프레임도 항상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강의는 기도와 신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더 주고 내가 답하지 않은 더 많은 질문도 줄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상처받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세상의 어느 먼 곳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직면한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